

# 디지털시대 식량안보, 답은 기술 혁신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전문가 참여 온라인 토론회  
재배·생산·관리기술  
농식품 유통소비 등 발표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시대! 식량안보, 농업기술혁신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영상 채널(www.youtube.com/rdakorea)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이날 포럼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융·복합 디지털 농업기술 소개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회로 진행됐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부 참석자 없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개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창길 특임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농업과 식량안보'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이어 ▲공주대학교 김재운 교수의 '디지털농업 시대의 작물육종전략' ▲전남대학교 이경환 교수의 '디지털재배·생산·관리기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원기 디지털혁신단장의 '스마트한 디



'디지털시대 식량안보, 농업기술혁신으로'를 주제로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이 열린 26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허태웅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부터 생중계 됐다.

지털 농식품 유통소비'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주)통원 한지화 종자사업본부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 국민밀산업협회 손준호 자조금위원장,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의 디지털농업기술과 식량안보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식량작물 생산 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대처 방안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농업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 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 발표 자료를 담은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 책자도 발간된다. 이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arda.go.kr)에서 피디에프(PDF) 문서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윤준철 원장은 "최

근 개발 중인 첨단 디지털농업기술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식량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식량안보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발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규성 원관대 교수는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일환으로 진안농협과 함께 26일 진안농협 본점에서 로컬푸드 출하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 '탄소중립, 로컬푸드가 열쇠'

전북농협, 진안농협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교육  
시설·토양·양분관리·상품화 판매 전략 등 특강  
내년 진안군 푸드플랜 추진 가속화에 힘 보태기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일환으로 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과 함께 26일 진안농협 본점에서 로컬푸드 출하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산자가 곧 브랜드인 출하농가의 영농기술을 높이고 고품질 상품생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설·토양·양분 관리, 사례 중심의 상품화 판매 전략, 소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의 운영은 농가 조직화가 필수이며 농가교육이 그 출발선"이라며 "본 과정이 진안군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규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단계를 가장 적은 농산물"이라면서 "진안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중소농들의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다" 밝혔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진안농협은 허남규 조합장에게 로컬푸드 코너를 마련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진안군 푸드플랜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공공 조달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의 운영은 농가 조직화가 필수이며 농가교육이 그 출발선"이라며 "본 과정이 진안군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규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 단계를 가장 적은 농산물"이라면서 "진안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중소농들의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다"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 범위 조정안 등 심의·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지난 26일 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지난 4월 입주한 글로벌 기금관에서 처음 열린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본부가 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

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기존 50~90%에서 40~8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은 해외채권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위탁운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 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채권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를 보고

받았다. 안내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의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작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안내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운용이 필요한 국민연금 기금 역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 투자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에너지공단  
탄소중립 실현 '맞손'  
자연재해 재난대응체계 구축  
에너지설비 안전성 향상 등  
안전관리 강화 협력 '약속'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안전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창섭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자연재해 재난대응체계 구축 ▲에너지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점과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인력 교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복되어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사의 검사기준과 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일원화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해소와 시공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연재해, 사고에 대한 공동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성 강화에도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산지태양광설비의 붕괴, 토사유출 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향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환경 변화 능동 대응

새만금개발청,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승모)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은 새만금 투자환경과 산업·경제, 행정, 관광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보화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정보화 비전 수립과 새만금 그린, 디지털 종합 추진방안의 핵심 사업에 활용될 정보화 통합이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와 '글로벌 예외 디지털 중심지, 디지털로 여는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정보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중장기 정보화 추진목표는 ▲디지털로 혁신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 ▲지속가능한 협업 거버넌스 구축, ▲미래



새만금개발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를 약속하는 스마트 그린 기반 구축이며, 새만금 실정에 맞춰 발굴한 20개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수요 조사를 했으며, 선도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보완 후 완료보고회를 개최, 올 11월에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는 방침이다. 오국연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새만금이 스마트 그린 뉴딜의 거점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 7월 전북 수출 6억9630만 달러

전년보다 44.6% ↑...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동제품 수출 117.6% 증가해 1위 수출품목으로

7월 전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6%가 증가한 6억963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동박 제품의 경우 전 세계적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17.6% 증가한 약 7천만 불을 기록해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발돋움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26일 발표한 "2021년 7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6% 증가한 6억9630만 달러, 수입은 36.9% 증가한 5억267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6,95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동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순으로 수출 1~3위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동제품(7,079만, 117.6%)에 이어 합성수지(6,159만, 76.1%), 정밀화학원료(5,158만, 79.4%), 자동차(4,927만, 3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 수출의 증가는 최근 국제 경기 회복세에 있고, 친환경차와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3,557만, 34.3%), 미국(\$1억942만, 49.6%), 일본(\$4,621만, 56.6%), 베트남(\$4,191만, 21.8%), 폴란드(\$3,952만, 166.0%) 등 5대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각 국가별로 주력 품목들의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중국은 동제품(\$1,962만, 58.5%), 미국은 농기계(\$3,079만, 41.8%), 일본은 의료기기(\$645만, 171.66.2%)가 최대 수출품목이었다. 또한 베트남은 자동차(\$1,620만, 205.0%), 폴란드는 동제품(\$2,533만, 176.7%)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북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지역 동제품은 전기차 판매가 확대된 2016년부터 매년 성장하는 품목으로 생산 공장을 추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전북지역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외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합성수지, 화학제품 등의 전통 경기민감 품목의 수출 강세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교육훈련 통한 인력양성... 전북인자위, 'Skill-Up'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3개 공동훈련센터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차 간담회 주요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청취하고, 하반기 운영현황 점검과 훈련센터 사례발표를 통해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인자위 공동위원장은 "전북인자위는 앞으로 도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회계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용유지, 고용위험종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는데 훈련센터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